

신산업 특별세션

일자 2020년 8월 12일(수) 13:00~16:40 **장소** 에메랄드(1F)

번호	발표 주제 (시간)	발표자(소속)
1	5G Enabling Industry Digitalization	정동학 상무 (화웨이)
2	가상플랫폼에서의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	손민혁 총괄부서장 (한국에이브이엘)
3	LTE-R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모델	김대중 단장 (SK텔레콤)
4	공중이동체 기반 대용량 이동형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	이희수 실장 (ETRI)
5	자율주행을 위한 5G 서비스 플랫폼	조원석 전무 (LG유플러스)

<강연 소개>



5G Enabling Industry Digitalization

정동학 상무 (화웨이)

5G의 글로벌 활성화에 따라 광대역 파이프 및 초저지연, 대규모 사물통신을 통한 새로운 B2B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고 있는 B2B case에 대해서 논하고 더불어 이에 관련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가상플랫폼에서의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

손민혁 총괄부서장 (한국에이브이엘)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은 여러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업체 뿐 아니라 완성된 기술을 검증하고 본격적인 출시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가상환경 플랫폼에서의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LTE-R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모델

김대중 단장 (SK텔레콤)

최근 철도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철도안전, 유지보수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통합 관제에 대한 니즈가 대두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철도사업의 특성, 기술동향, 통합관제의 발전 방향 및 LTE-R을 활용한 통합 관제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공중이동체 기반 대용량 이동형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

이희수 실장 (ETRI)

통신재난으로 인한 고정형 이동통신 인프라 붕괴 및 긴급구조, 치안·경호로 인한 대용량 이동통신 수요 발생시 이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용량 이동형 이동통신 인프라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공중이동체를 활용한 대용량 이동형 이동통신 인프라 제공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소개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5G 서비스 플랫폼

조원석 전무 (LG유플러스)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5G포함 통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MEC, V2X, Dynamic 맵, 고정밀측위(RTK) 솔루션 구현(국토부 C-ITS 기본 서비스 중 6개 선별 구현)과 이를 통한 효율을 LG 사이언스파크에서의 시연 중심으로 소개